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KIET 산업정책 리포트

i-KIET 산업경제이슈

제 21 호
| 2017-21 |
2017.6.5.

한·미 FTA 재협상과 우리의 대응 방향

요약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FTA 재협상론이 대두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에도 다양한 채널로 무역적자 문제를 부각시켜 주요 교역국인 한국, 중국, 멕시코 등을 전방위적으로 압박
-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FTA 발효 이후 증가함에 따라 미국의 FTA 재협상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무역적자의 확대요인 분석과 우리 산업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

한·미 FTA 재협상이 우리 수출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

- FTA를 통한 양국의 관세인하가 상당부분 진전되어 재협상을 통한 관세인하 일정 촉진 또는 유예의 효과는 제한적임.
- 최악의 경우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미국의 제조업 MFN 관세율(1.6%)이 한국(4.0%) 대비 낮아 우리 기업의 수출감소효과는 수입감소효과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

미국이 문제 삼는 대한국 무역적자는 양국 교역구조의 상보성과 미국의 산업경쟁력 부진에 기인

- 양국의 교역구조는 상당히 보완적이며, 최근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확대는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의 수입 증가에 기인
- 무역수지와 관세인하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으며 오히려 대한국 무역적자 확대는 미국의 수출경쟁력 저하와 연관

재협상을 대비하여 역진(逆進)하지 않는 업종별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

- 한·미 FTA 재협상은 보호무역으로의 회귀가 아닌 상품분야의 추가개방과 규범, TBT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목적으로 해야 함.
- 무역수지 불균형이 큰 업종의 경우 대미국 직접투자와 무역수지를 연계하는 방어논리를 구축하고 무역장벽 완화를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

* *i*–KIET의 *i*는 industry 4.0, AI, IoT 등을 상징하는 말로 산업연구원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 전문 연구를 선도한다는 의미를 담음.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FTA 재협상론이 대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다양한 채널로 무역적자 문제를 부각시켜 주요 교역상대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

- 3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와 무역대표부가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에 대한 무역적자 구조를 조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01]
- 4월 29일의 행정명령은 미국이 맺은 모든 무역협정의 위반 및 남용(violations and abuses)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를 규정[02]
- 미 행정부는 그 외에도 언론을 통해 무역적자 문제를 공론화하여 중국과 멕시코 등 적자규모가 큰 교역상대국들을 압박하고 있음.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는 한·미 FTA 발효 이후 증가하는 추이

-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는 2011년 133억 달러에서 2015년 283억 달러로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한 뒤 2016년에는 277억 달러를 기록[03]
- FTA 발효를 전후로 5년 평균을 비교하여도 발효 전 120억 달러에서 발효 후 237억 달러로 적자폭이 약 두 배 증가

특히 최근 미국정부의 최고위급에서도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재협상에 대한 우리 산업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

- 4월 18일 펜스 부통령이 주한 상공회의소(AMCHAM) 연설에서 한·미 FTA의 개정(review, reform) 필요성을 언급[04]
- 같은 달 25일 로스 상무장관은 WSJ에서 NAFTA와 마찬가지로 한·미 FTA 협상을 재검토(reopen)하기를 원한다고 밝힘.[05]

01]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7/03/31/presidential-executive-order-regarding-omnibus-report-significant-trade
02]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7/05/01/presidential-executive-order-addressing-trade-agreement-violations-and
03] 한국 기준 대미국 무역흑자는 2016년 기준 233억 달러로 미국 기준 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시차, 가치평가방법 등의 차이에 기인. 본 연구는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USITC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동일한 무역흐름에 대한 기준국가별 통계의 불일치에 대해서는 다음 링크를 참고. http://unstats.un.org/unsd/tradekb/Knowledgebase/50657/Bilateral-asymmetries?Keywords=asymmetry
04] http://www.reuters.com/article/us-southkorea-usa-pence-idUSKBN17K01C
05] http://blogs.wsj.com/briefly/2017/04/25/5-takeaways-from-commerce-secretary-wilbur-ross-on-trade/
WSJ 등 언론에서는 'reopen'으로 표현하였으며, 미 상무부 브리핑 원문에서는 '한·미 FTA 협상'에 대해 검토할 적절한 시점(a logical time to think through whether there was something to be done or not)이라고 표현.

표 1] 미국의 한·미 FTA 재협상 관련 발언

날짜	발언 주체	배경	발언 수위
2016.7.21	도널드 트럼프 대선후보	공화당 대선후보 수락연설	KORUS FTA=job killing deal
2016.8.3 •이후 유사 발언 다수	도널드 트럼프 대선후보	버지니아 유세	KORUS FTA=job killing deal, disaster
2017.2.1	테리 밀러 헤리티지 재단 국제무역연구소장	헤리티지재단-무역협회 공동개최 세미나 발언	partial improvement or update
2017.4.18	마이크 펜스 부통령	AMCHAM 연설	review, reform
2017.4.25	윌버 로스 상무장관	WSJ 인터뷰	reopen
2017.4.27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 인터뷰	renegotiate, termination

● 이틀 뒤인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로이터 인터뷰를 통해 한·미 FTA를 받아들일 수 없는(unacceptable), 끔찍한(horrible) 협상으로 규정하고 재협상(renegotiate) 또는 종료(termination) 옵션을 제시[06]

● 한·미 FTA의 재협상 압력이 점증됨에 따라 산업별로 사전에 재협상의 영향을 정밀분석하고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

한·미 FTA 재협상이 우리 수출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

FTA를 통해 양국의 관세인하가 상당부분 진전되어 재협상을 통한 관세인하 일정 촉진 또는 유예의 효과는 제한적임.

●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관세가 대부분 철폐되어 2016년 양국 간 교역의 93.4%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가중평균 관세율은 양국 모두 0.1% 수준에 불과

● 재협상을 통해 민감품목으로 분류된 품목군의 자유화가 지연되거나 촉진되더라도 그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

협정 종료 시 미국의 대한국 관세율은 1.6%, 한국의 대미국 관세율은 최소 4%로 한국의 대미 관세가 더 높은 수준

● 2016년 미국이 WTO 가입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단순평균 기준 3.55%[07]로 한국(12.8%)보다 낮음.

06] http://www.reuters.com/article/us-usa-trump-southkorea-exclusive-idUSKBN17U09M
07] WTO 가입국에 부과하는 applied MFN 관세율 중 평균을 환산할 수 있는 종가세의 평균세율을 의미.

● FTA가 종료되고 양국이 MFN 세율을 상호 적용할 경우 미국의 대한국 관세율은 1.6%[08], 한국의 대미국 제조업 관세율은 4.0%, 전 산업 관세율은 17.1%[09]로 한국이 미국 대비 높은 수준

● 이는 협정 종료 시 미국의 대한국 수출기업이 한국의 대미국 수출기업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부담해야 함을 의미

협정 종료 시 미국의 관세인상을 통한 우리 기업의 수출감소효과는 동일한 상황의 수입감소효과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

● 미국은 FTA 조문에 의거 대한국 수입물품[10]에 대한 0.3464%의 MPF(물품취급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하고 있으나 FTA 종료 시 면제혜택이 소멸

● FTA 활용률 등을 감안할 때, FTA 종료 시 상품분야에서 발생할 수출감소효과가 수입감소효과를 상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한·미 간 2015년 산업별 수출입 구조를 가정할 때 한·미 FTA 종료 시 한국의 대미국 수출액 13억 2,000만 달러, 수입액은 15억 8,000만 달러가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정

● 다만, 양국 간 교역 감소는 효율성 저하를 통해 소비자후생 및 총생산 감소로 이어져 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미국이 문제 삼는 대한국 무역적자는 양국 교역구조의 상보성과 미국의 산업경쟁력 부진에 기인

한·미 교역관계는 보완성이 크며, 특히 한국의 대미국 주요 수출품은 대부분 미국의 수출경쟁력이 부진한 품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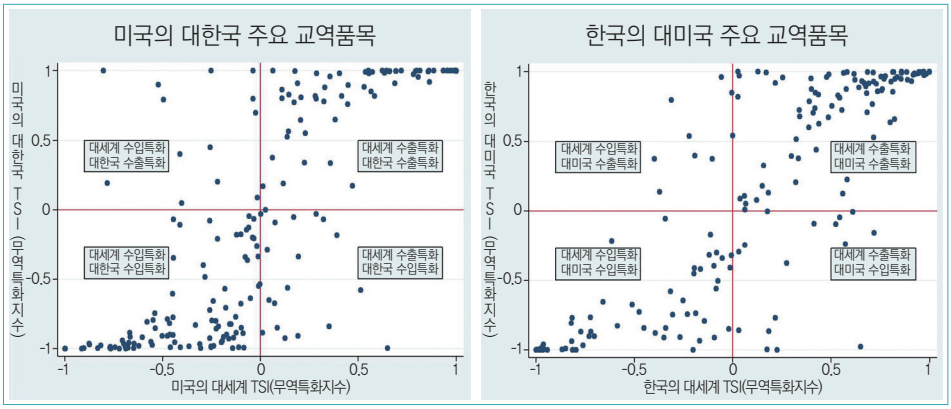
● 한국과 미국은 〈그림 1〉에서와 같이 자국의 경쟁력이 낮으면서 상대국의 경쟁력이 높은 품목을 주로 수입하는 상호 보완적 관계

● HS 소호기준 2016년 미국의 대한국 30대 수입품목 규모는 428억 달러이며, 이는 대한국 총수입(699억 달러)의 61.2%에 해당

● 30개 중 26개 품목의 대세계 수입이 수출보다 커 수입에 특화, 16개 품목은 수출이 수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08] 기준 자료(HS 또는 국가별 세번)에 따라 결과가 약간 다르게 도출되며, 본 연구에서는 WTO, UN에서 공표하는 HS 기준 자료를 사용하여 산출하였음. 해당 수치는 제조업/전 산업이 유사함.
09] 농림어업의 경우 TRQ 품목, 종량세 품목이 다수 존재하여 정확한 산출이 어려우므로 제조업 평균 수치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다만, 농림어업의 경우 제조업 대비 MFN 관세율 수준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WTO에서 한국이 농업분야에 대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 이에 대한 반증임.
10] 정확히는 485달러 이상의 수입에 한함.

그림 1] 한·미 주요 교역품목의 무역특화 정도



자료 : USITC, 대한민국 관세청.
주 : 각 점은 HS 소호(6단위) 품목을 의미.

● 역으로 한국의 30대 대미국 수입품 중 25개 품목이 대세계 수입에 특화되어 있어 양국 간 교역의 보완성을 입증

최근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확대는 자동차, 혈청, 반도체 수입 증가로 상당부분 설명 가능

● FTA 발효 전후(2011년 대비 2016년)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확대는 수출감소와 수입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후자의 기여도가 더 큼.

● 대한국 수출감소는 철강(-12억 5,000만 달러)과 석유화학(-13억 1,000만 달러), 반도체(-6억 9,000만 달러)를 중심으로 나타난 반면, 수입증가는 자동차(91억 4,000만 달러), 기타제조업(27억 6,000만 달러)에 집중

● 그 결과, 자동차(HS 870322-4), 혈청(300210), 반도체(854140, 854232) 등 10대 수입 품목의 FTA 발효 전후 무역수지가 133억 달러 악화되어 전체 제조업 무역수지(-137억 달러) 악화를 견인

무역수지와 관세인하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 한국의 대미국 주요 수출 증가 업종에 대한 미국의 관세인하폭은 자동차(2.4%포인트), 기타제조업(0.1%포인트), 정밀화학(1.8%포인트), 일반기계(1.6%포인트) 등으로 높지 않으며, 제조업 전체평균으로는 1.5%에 불과

● 한국의 대미국 관세인하폭이 상대적으로 큰 업종은 섬유(9.3%포인트), 자동차(8.0%포인트), 일반기계(7.0%포인트) 등이 있으나 자동차를 제외하면 동 기간 수입이 오히려 감소

● 즉, 관세인하와 수입증가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표 2] 미국의 산업별 대한국 수출입 및 수지 변동

	2011년 대비 2016년 미국의 대한국 교역액 증감(억 달러)			대한국 관세인하 (%포인트)	대미국 관세인하 (%포인트)
	수지	수입	수출		
비금속광물제품	-0.9	0.4	-0.5	1.5	7.9
비철금속	-4.1	1.9	-2.3	1.8	4.5
철강	-10.4	-2.1	-12.5	0.4	4.5
석유화학	-11.1	-2.0	-13.1	1.4	5.1
정밀화학	-6.6	7.8	1.2	1.8	5.5
반도체	-10.2	3.3	-6.9	0.1	1.2
디스플레이	1.8	0.1	1.9	0.5	1.4
전기전자	16.3	-16.4	-0.1	0.4	4.5
일반기계	-10.0	7.1	-2.9	1.6	7.0
자동차	-79.9	91.4	11.5	2.4	8.0
조선	-0.6	0.1	-0.5	4.2	6.6
항공	23.9	2.3	26.2	0.0	0.0
생활용품	-6.0	4.4	-1.6	2.7	3.1
섬유	-1.3	0.1	-1.2	7.6	9.3
기타제조업	-33.7	27.6	-6.1	0.1	3.8
제조업[11]	-137.3	129.7	-7.6	1.5	3.9

자료 : USITC, 대한민국 관세청, 법제처로부터 저자 작성.

* 미국의 대한국 자동차 수입이 크게 증가했지만, 이는 관세양허가 이루어지지 않은 2015년에 이미 큰 폭으로 증가했으므로 관세인하의 결과로만 보기 어려움.

최근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확대된 업종은 동 기간 대세계 수출경쟁력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

-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는 산업은 미국의 대세계 무역경쟁력이 취약한 업종임.
- 반대로 항공, 석유화학 등 미국이 세계를 상대로 경쟁력을 갖춘 업종은 한국이 수입에 특화되어 있어 보완적 관계를 유지
- 2011년 대비 2016년 대한국 무역적자 폭이 확대된 업종은 동 기간 미국의 대세계 경쟁력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

11] 원칙적으로 제조업의 범주에 재수출입/소액거래 코드(HS 98류 이후)를 "기타"로 포함시키는 것이 정확하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고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분석 등이 불가하므로 일부 표에서는 소계에만 이를 포함시켰음.

표 3] 미국의 산업별 대한국 무역수지 및 경쟁력 변동

	대한국 무역수지 (억 달러)		미국의 대세계 경쟁력(TSI)		경쟁력 변화 (D-C)	미국의 대한국 수지 변화 (B-A)
	2011(A)	2016(B)	2011(C)	2016(D)		
비금속광물제품	1.1	0.2	-0.2	-0.3	-0.08	-0.9
비철금속	6.8	2.6	-0.1	-0.2	-0.02	-4.1
철강	-18.1	-28.5	-0.1	-0.3	-0.12	-10.4
석유화학	13.4	2.3	0.4	0.3	-0.02	-11.1
정밀화학	20.1	13.5	0.0	0.0	-0.03	-6.6
반도체	22.1	11.8	0.0	0.0	-0.03	-10.2
디스플레이	4.3	6.1	0.0	0.0	0.01	1.8
전기전자	-132.8	-116.4	-0.3	-0.4	-0.05	16.3
일반기계	-23.0	-33.0	0.0	-0.2	-0.15	-10.0
자동차	-111.1	-191.0	-0.2	-0.4	-0.14	-79.9
조선	1.3	0.7	0.2	0.0	-0.21	-0.6
항공	22.3	46.2	0.6	0.6	0.02	23.9
생활용품	-9.7	-15.7	-0.3	-0.4	-0.04	-6.0
섬유	-8.2	-9.5	-0.7	-0.7	-0.02	-1.3
기타제조업	14.9	-18.8	-0.4	-0.2	0.17	-33.7
제조업	-198.3	-335.5	-0.2	-0.2	0.00	-137.3

자료 : TSI는 무역특화지수인 Trade Specialization Index의 약자로 그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수출특화의 정도가 강하여 무역경쟁력이 높고, -1에 근접할수록 수입특화의 정도가 강하여 무역경쟁력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함.
주 : USITC로부터 저자 작성.

재협상을 대비하여 역진(逆進)하지 않는 업종별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

한·미 FTA 재협상은 보호무역으로의 회귀가 아닌 상품분야의 추가개방과 무역기술장벽 등 비관세장벽 분야에서의 다양한 협력을 목적으로 해야 함.

- FTA의 역진은 당사국 모두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바, 재협상의 기조를 이행의무 준수 및 추가개방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미국이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압박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제조업 유관세 품목들을 레버리지로 하는 추가개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
- 또한 미국이 관심을 보이는 무역기술장벽 등 비관세장벽 분야에서 미국측 예상 의제에 대한 협의방안을 마련하고,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요구 의제를 발굴할 필요

다만 무역수지 불균형이 큰 업종의 경우 대미국 직접투자와 무역수지를 연계하는 방어논리를 구축하고 무역장벽 완화를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

●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가 큰 업종은 관세효과와 수입증가의 상관관계가 낮음을 규명하고, 대미국 직접투자로 인한 부품 수입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의 대응논리 마련이 긴요

● 특히 재협상 시 미국측이 제기 가능한 의제를 미국측 자료(예컨대, USTR의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예측 및 대비하여 범산업적 의제 채택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 진 면 (연구위원·산업통계분석본부)
jmlee@kiet.re.kr
044-287-3183

김 바 우 (전문연구원·통계분석실)
instrumist@kiet.re.kr
044-287-3921

KIET 산업연구원

발행인 유병규 / **편집인** 주현 / **편집** · **교정** 조계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el:044-287-3114 **Fax**:044-287-3333 www.kiet.re.kr

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 www.kiet.re.kr에서도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